

危險水位… 세계 食糧사정

◇……「프레데릭·포사이스」의 國際政治小說「惡魔의 選擇」은 蘇…◇
◇…聯의 흉작이 3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지피는 방아쇠 구실을…◇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假想의 스토리는 현재의…◇
◇…식량위기 現實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西紀 2010년 世界 人…◇
◇…口가 현재의 2배인 80억에 이를 것이란 「분명한 추계」는 바…◇
◇…로 世界 食糧難의 現住所가 된다. 오늘의 세계 식량 사정들…◇
◇…점검해 본다. <編輯者註>…◇

調 查 部

食糧부족 현상 도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人口에 대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이 공급부족을 일으켜 人類는 결국 몰락하리라고 2백년전 「토머스·멜더스」는 경고했다. 이는 독일에서 비롯된 과학혁명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및 신품종 개발 등으로 녹색혁명이 일어나면서 퇴색했다.

그러나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식량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현실로 나타났었다. 인구폭발, 증산의 限界性 등은 식량부족현상을 노출시켰으며, 이외 기상이변, 人爲的인 工業化와 개발에 따른 地球의 沙漠化현상이 위기를 가속시켰다.

74년 「유엔」에 설치된 世界食糧理事會는 지난 6월 「탄자니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80년대를 식량위기의 10년」으로 규정짓기에 이르렀다.

또한 國際小麥委員會(IWC)도 지난 11월 연례보고서에서 올 小麥생산량이 소련과 남반구 지역에서의 일기불순으로 인해 지난 6월의 추계량보다 6백만톤이나 적은 4억 4천 4백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내년도에 세계적인 식량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렸다.

한편 「에두아드르·사우마」 유엔 食糧農業機構(FAO) 사무국장도 제78차 이사회 개막과 함께 발표한 연례식량보고서를 통해 세계 농산물생산은 「限界增加」만을 기록했을 뿐 1인당 식량 및 농산물 생산은 연 2년째 감소추세



앞으로 식량난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우울한 경고와 함께 곡창의 평원과는 대조적으로 기아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세계 곡물 비축량이 14%에서 10%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아프리카」 및 여타 지역에서 잠재적인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석유위기보다 타격이 클 食糧難의 시대가 왔음을 실감케 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北美를 휩쓴 한발로 올 세계 곡물생산은 1936년 이후 50년만의 최악의 흉작을 기록, 세계시장의 곡물가를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원유수입부담을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雪上加霜의 시련을 맞고 있다.

世界食糧緊張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의 절대량의 부족, 異常기후에 따른 작황의 감소, 곡물生産地와 消費地의 격심한 偏在현상, 곡물 「메이저」의 영리추구에 의한 流通上의 문제, 증산을 위한 투자의 부족이란 5갈래의 흐름에서 야기된다.

氣象異變과 增產限界

그러면 금년의 기상조건과 농작물의 작황은 어떠한가.

올해는 거의 전세계가 이상할이만큼 극심한 이상기온을 맞아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작황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의 곡창이자 또 세계의 곡창이기도 한 「텍사스」 「루이지애나」 州 등 美남서부와 일부 中西部地方은 올해 13週나 계속된 한발과 폭서로 경작지가 거북이등이 되는 바람에 옥수수, 소맥, 면화 등의 작황이 최소 20%나 감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이상기후는 미국 이외에도 밀의 주산지인 「캐나다」 「멕시코」 북부 「페루」 「아프가니스탄」 등의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人口를 갖고 있는 中共에서도 올해 1백 5년만에 처음인 가뭄이 닥쳐 지난 7월 한달동안의 강우량이 평년의 10% 밖에 안되는 24mm였다. 예부터 콩으로 유명한 滿州에선 저수지가 매마른 농장으로 둔갑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같은 가뭄과는 대조적으로 大西洋및 地中海 연안과 蘇聯에 이르는 「유럽」 지역에서는 폭우와 強風에 이어 장마가 몰고 온 이상 한랭 기온으로 農作物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소련의 穀倉地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집중 폭우로 곡물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장마와 한파 등은 수확량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실 자체에도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그 예로 옥수수의 경우는 전체 수확량의 약 5분의 1이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평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곡물을 雨中에 수확했기 때문에 水分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 중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변질된 것이 많아 사료로 사용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이같은 흉작에 따라 세계최대의 곡물수입국인 蘇聯의 입장은 어떠한가.

蘇聯작황의 好·不況은 곧바로 세계식량 사정에 파급된다. 소련은 70년대 이전까지 세계에 흉작이 들어 穀物輸入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사료곡물을 줄이기 위해 家畜수를 줄이는 伸縮性있는 수입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는 이같은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 작물의 흉작·풍작에 관계치 않고 사료곡물을 계속 수입해오는 사재기작전에 나섰다.

소련은 올해 穀物生産目標를 자급 下限線인 2억 3천만톤으로 잡고 있으나 西方전문가들은 고작해야 2억 1천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최소한 2천 8백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형편이다.

「멕시코」 역시 금년의 暴暴와 전조기후 때문에 곡물수입국으로 전락했고 日本도 지난 10월에 異常냉온현상으로 올해 쌀수확이 1954년 이래 최저의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中共도 최근 매년 6백만~9백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기로 美國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氣象異變에 대해 기상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주장들을 펴고 있으나 그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기상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는 대기중에 증가한 탄산「가스」와 먼지의 영향으로 氣流의 「패턴」이 바뀌어 이상변화를 일으켰다는 人爲說과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에 따른 방대한 양의 화산재가 太陽熱을 차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한파가 계속되리라는 噴火說 등이 있다.

그밖에 태양의 흑점활동이 지상의 기온에 영향을 준다는 太陽黑點說도 있다.

이같은 기상이변이 야기시킨 작황부진은 곡물생산국은 輸出감소를 해야 하고 이에 반해 배고픈 수입국들은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하는 등의 공급과 수요의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곡물 확보를 위한 경쟁전은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곡물가앙등이란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자원 「내셔널리즘」을 촉발시켜 食糧武器化 추세는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食糧 武器化 움직임

食糧이 OPEC 국가들의 石油처럼 무기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이 共存하고 있다.

이같은 긍정·부정을 떠나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美國이 올해 1월 4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에 대한 보복조치로 소련이 발주한 1천 7백만톤의 식량수출을 禁止한다고 발표했다.

이 곡물은 美蘇곡물협정에 따라 79년 10월부터 80년 9월까지 販賣기로 한 2천 5백만톤 중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몫이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농업전문가들은 식량이 석유에 뒤지지 않는 戰略物資로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어쩌면 식량무기화의 序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은 美國의 對 OPEC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OPEC가 油價를 올릴 때마다 產油國에 대해 유가를 인하하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량을 대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70년대초에는 원유 1배럴과 소맥 1부셀(27.1kg)의 가격이 2달러선으로 거의 같았다. 그후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석유값이 약 15배가량 뛰었고 소맥값은 거북이 걸음으로 올랐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美國人들은 석유와 곡물을 거의 같은 차원에서 다루려는 의식이 싹텄다. 석유가 무기화 되는 마당에 곡물도 그에 뒤질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실제로 곡물을 武器化한 사례는 73년 제 1차 석유값 폭동에 자극받은 곡물가격 파동과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있을 뿐이다.

사실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의 소리가 높다.

美國 대통령이 蘇聯에 대해서 취한 이 보복조치가 79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달아 穀物이

감산된 소련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지금까지도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곡물 輸入先의 多邊化를 위해 「브라질」 등 南美의 곡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제 3국을 통해 美國의 곡물을 수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이같은 조치를 선포한 美國은 최대의 곡물수입 「파트너」를 놓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美國은 販路가 막힌 剩餘農產物처리에 부심한 나머지 代替연료 개발 등에 사용하는 한편 우방국가들에 수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의 「버클랜드」 장관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 對蘇곡물공급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최초로 식량을 무기화한 곡물전쟁은 용두사미가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구나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은 지난 번 그의 선거유세중에 소련에 대한 곡물판매금지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식량은 기후 변동에 의해 엄청난 起伏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는데다 수출이 몇몇 나라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다른 것으로 代替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곡물 생산국이 自國의 생산농민들을 保護해야 한다는 것과 장기간 팔지 않고 쌓아 놓을 수 있는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價格 最高 70%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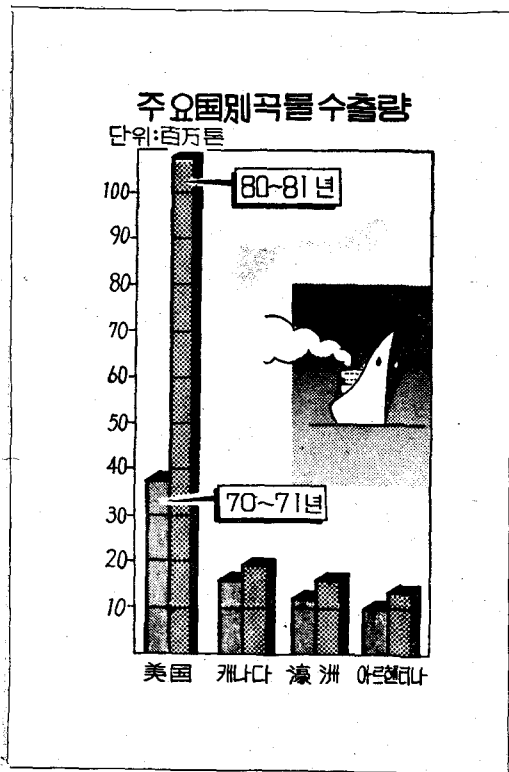
식량은 氣象의 변동에 따라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기상변화가 現實化된 이 시점에

서 식량무기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FAO의 예측을 보면 세계식량需要는 80~85년 사이에 先進國은 年 1.5% 開發途上國은 3.6% 증가하는 반면 生産은 선진국 年 2.3%, 개도국은 2.6%로 증가, 85년에 가서 개도국의 곡물부족량은 8천 5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FAO와 美國農務省이 잠정추계한 全世界 곡물수확량은 지난 8월 11일 현재 예측기준으로 14억 3천여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9년도의 13억 9천 9백만톤에 비해 3천 1백만톤이 더 많은 2.2%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증가량은 年間 식량 소비 증가율 3.2%보다 1%인포트나 낮은 것이다.



美農務성은 올해 식량소비예상량을 14억 4천 2백만톤으로 잡고 있다. 수확목표가 예상대로 달성된다 해도 올해 需給에는 1천 2백만

톤(약 0.9%)이나 부족한 상태다.

또 선진국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곡물생산 증가율이 앞서는데 반해 開發途上國은 곡물증가율이 인구증가율에 밀리고 있다.

「유엔」報告書에 따르면 70~77년까지 선진국의 人口增加率은 0.83%에 그치는데 비해 곡물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4.24%로 인구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같은 期間동안 인구증가율이 2.3%인데 비해 穀物生産增加率은 1.94% 밖에 안돼 인구증가율을 0.34%나 밀리고 있다.

이에따라 개도국들은 갈수록 饑餓인구가 늘어가는데 비례해서 식량수출국들은 식량의 위력을 더욱 발휘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 東南亞 및 西南亞의 極貧國에서는 4억~4억 5천만의 饑餓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美國 農務성이 지난 9월에 밝힌 세계곡물 在庫量은 지난 8월의 추정보다 1천 4백만톤이 적은 1억 7천 1백만톤으로 꽤있다. 이는 6월말 재고량에 비해 무려 20%나 감소된 것으로 5년 이래 최저 水準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곡물재고량은 總需要量인 약 16억톤의 13%선을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 10% 미만까지 내려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作況의 부진으로 곡물가격이 앙등하고 在庫가 차차 줄어드는 틈을 타 利得을 보기 위해 활개치고 있는 集團들이 소위 穀物 「메이저」 들이다.

穀物메이저의 弄奸

곡물시장에서 價格波動을 가져오는 것은 생산량에 대한 交易量이 어느 만큼의 비율을 차

지하느냐 하는 것과 또 多國籍 농산물 무역상들인 「메이저」들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이 곡물 「메이저」들은 석유財閥들과 마찬가지로 세계곡물 무역량의 3분의 2를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현재 양곡 교역량의 80%를 움직이는 5개의 大穀物商社가 있다.

「카길」 「드레퓨즈」 「콘티넨탈·크레인」 「분게」 「가르나크」 등이다.

이들은 세계 주요국가에 子會社 혹은 海外支社를 설치해 놓고 있는 多國籍기업들이다. 「카길」의 경우 이들은 83개국에, 「드레퓨즈」는 40여개국에, 「분게」와 「가르나크」는 11개국에 각각 子會社가 있다. 이들은 매일 現物時勢를 「체크」하고 각종 장비를 동원, 기상 및 작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 날의 곡물시세를 造作하고 장기적인 곡물需給상황을 전망, 買占 혹은 放出하는 등 세계곡물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대반이 유대인資本(카길과 가르나크 제외)인 이들은 株式非公開로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資本金이나 賣出額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흑막에 가려져 있다.

美國 의회에서도 이들의 事態파악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미국내에서는 물론 전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은 그 힘을 세계의 곡물파동이 있을 때마다 발휘하고 있다.

곡물 「메이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카길」社는 연간 매출규모가 53억달러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세계 곡물交易량의 4분의 1을 움직이고 있다.

「카길」은 본사 직접去來를 피하고 子會社 또는 우회판매를 하는 것이 더 많아 드러난 外形보다 그 實勢가 더욱 강하다.

「카길」社의 本社는 「미네소타」州 「미니애폴

리스」 교외 숲속에 있는 비바람에 바랜 18세기풍의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걸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들어가면 「시카고」 곡물거래소와 직결되어 있는 곡물가격 변동 電光板, 전세계와 곡물정보를 교환하는 「텔레क्स」실, 「컴퓨터」실을 갖추고 있다.

이곳 회사의 중요부서에는 外部人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전세계의 政治·經濟·氣象 등 모든 情報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회사의 곡물에 대한 정보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은 美國중앙정보국(CIA)을 능가할 정도이다.

이들은 이런 정보망을 통해 흉작이 예상되면 곡물을 대량으로 買占했다가 다시 값을 크게 올려 내다 파는 暴利를 취하며 때로는 대량 곡물 수요국들과 밀거래도 하고 있다.

이들 「메이저」의 농간은 最近 곡물가의 가격 동향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올들어 小麥·옥수수·大豆·大麥 및 쌀 등의 주요곡물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올랐다. 이 중 옥수수의 경우는 79년 平均價가 톤당 1백 19달러 48센트 이던 것이 올 1월에는 평균 1백 49달러 33센트로 25% 올랐고 소맥도 톤당 1백 60달러 11센트에서 1백 76달러로 15달러가 뛰었다. 특히 쌀의 경우는 태국산 하품기준으로 톤당 79년엔 평균 2백 53달러 44센트에서 지난 7월엔 평균 4백 25달러로 72%가 올랐다.

「시카고」 곡물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곡물가격이 계속 올라 옥수수의 경우 연말에 가서 現在價보다 12.7%, 大豆는 6.8%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가지 複合要因에 의해 세계 곳곳에 食糧不足·饑餓의 그림자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